

정부,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나프타 수급상황 긴급 점검

-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나프타 물량 확보...단기수급 영향은 제한적
- 정부·석유화학 업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에 대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8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 선언과 사우디 해상 봉쇄 발표, 미군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 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국내 나프타 수급과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미-이란 간 ‘종전 MOU’ 체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대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홍해 일대 사우디 유조선 공격 등이 이어지며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중동 정세 악화가 국내 나프타 수급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화학 업계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함께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나프타 수급과 석유화학제품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을 점검하였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8월까지 필요한 나프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석유화학제품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이 국내 나프타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와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중동 정세와 국내외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해 온 수급 안정 조치를 지속하고, 9월 이후 필요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프타 수급 영향으로 인한 의료·보건 등 국민 생활 필수품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양여운 (044-203-4938)

